

곡성군, 친환경쌀 산업 고도화단지 박차



곡성군은 들녘별 규모화 친환경 쌀 산업 고도화단지 육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품질 쌀 생산은 물론 가공까지 연계한 사업이다. 단지규모는 232ha이다. 군에서는 시범단지와 비 친환경경 재배단지에 매년 피해를 주는 먹노린재 방제를 위해 중점관리하고

단지규모 232ha...먹노린재 방제 중점 관리

석곡농협과 농가 자체적 옥수수 심기로 방제

있다. 기존 약제방제와 별도로 해충 습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먹노린재가 선호하는 옥수수, 수수를 심었다. 또한 군 자체사업으로 1150ha에 친환경단지 돌발해충 방제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다.

민간에서도 먹노린재를 방제하기 위해 석곡농협과 농가에서는 자체적으로 논두렁에 옥수수를 심고 있다. 월동된 해충이 본딴으로 이동해서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논두렁을 중심으로 옥수수에 유인된 먹노린재는 무인행기, 드

론 등으로 집중 방제할 예정이다. 2019년 농업기술원의 시험에 따르면 먹노린재 6월 초부터 유인되고 6월 하순에서 7월 상순에 논으로 집중 이동한다고 되어있다. 군 관계자는 트랩과 유아등에 채집된 개체수를 조사하고 이동시기와 양을 파악하여 방제에 활용하고 지역별 순회 예찰반 운영을 통해 병해충 발생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곡성=김광휘 기자



화순군, '국가면역치료플랫폼' 유치

화순군이 면역치료 국가 컨트롤타워를 담당할 '국가 면역치료혁신플랫폼 구축 사업'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1일 구충곤 화순군수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과 함께 전남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국가 면역치료혁신플랫폼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구충곤 군수는 "면역치료 플랫폼 구축 유치로 우리 화순이 차세대 백신산업과 면역치료 산업의 거점도시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공모사업 유치로 탄력을 받은 생물약산업벨트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든든한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남대학교의과대학(화순전남대병원)이 주관, 운영할 국가

산·학·연·병·관의 효율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오픈이노베이션 방식으로 추진된다. 항암 면역치료 세계시장은 암치료 세계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1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 면역치료혁신플랫폼을 구축해 난치성 질환인 암과 치매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면역치료 원천기술 개발로 고가의 면역항암제를 국산화하고 면역치료 분야 거점 기반을 구축해 글로벌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화순군은 이번 사업으로 면역치료 연관 기업 30개사 유치, 1100여 개의 일자리 창출, 항암 면역치료제 국산화와 신약 개발 등에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하고

2024년까지 5년간 460억 투입...2021년까지 건립 예정
구충곤 군수 "차세대 백신·면역치료 산업 선도 발판 마련"

면역치료혁신플랫폼은 면역치료제 연구개발, 전임상·임상시험, 제품화까지 면역치료제 개발의 전주기를 원스톱 지원하는 면역치료 국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한다.

국가 면역치료혁신플랫폼 구축 사업에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사업비 460억(국비 230·지방비 230) 원을 투입되며, 화순백신산업특구 내 화순전남대병원 인근에 2021년까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된다. 면역치료 전문가 70여명과 국내 유수의 대학교·기업·종합병원 등 17개 기관이 참여한다.

전남대와 GIST, 포스텍, 화순전남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주)박셀바이오 등 국내 최고의 면역치료 전문 기관·기업 등

있다. 생물약산업벨트 조성 사업의 핵심 기관인 국가 면역치료 혁신플랫폼을 유치함에 따라 산업벨트 조성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선 7기 화순군과 전남도는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인 화순·나주·장흥 생물약산업벨트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다.

화순군은 국가 면역치료혁신플랫폼 구축을 포함해 ▲항암 바이러스백터 지원센터 구축(290억) ▲백신전문 기술인력 양성 사업(200억) ▲스마트 임상지원센터 구축(125억) ▲노화면역헬스 인증센터 구축(120억)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180억) 사업을 단계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화순=박순철 기자

"짹짹한 장아찌에 밥 한 공기 딱딱" 나주시, '발효음식 교육' 개강

나주향토음식체험문화관 교육생 20명 25일까지 총 5회

나주시는 5월28일 향토음식체험문화관 '발효음식 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통식문화 계승을 위한 향토음식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남도음식 장만에 필수인 전통 '장류' (막장·고추장 등)와 제철 식재료를 소금, 간장에 절여 숙성시켜 만든 '장아찌류' 이른·실습 과정으로 마련됐다. 나주시는 사전 모집을 통해 선정된 교육생 20명을 대상으로 오

는 25일까지 매주 목요일(총5회) 발효음식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천수봉 남도음식명인, 백정자 축장명인 등 향토음식 전문 강사를 초청해 △장류·장아찌류 문화 이론 교육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장아찌(호두·더덕·복어포 등 5개 품목) 요리 실습 △막장·집장·고추장 제조 실습 등이다. 이날 개강식은 교육생 오리엔테이션과 첫 수업으로 발효음식



의 역사, 문화에 대한 이론 교육과 호두·더덕·복어포 장아찌 실습이 이뤄졌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향토음식 체험문화관을 통해 잊혀져가는 전통식문화를 보존·계승하고 맛

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가겠다"며 "이번 발효음식 교육생들이 전통식문화 대중화에 앞장서는 전문 리더로 첫 발을 내딛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 기자

구례군, 대한민국압화대전 시상

대통령상 부산 전승희 작가

구례군은 국제대전으로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는 제19회 대한민국압화대전 시상식을 5월29일 개최했다. 올해 시상식은 생활 속 거리를 위해 수상자만 참석하는 가운데 구례군 한국압화박물관에서 소규모로 열렸다. 올해는 9개국에서 465점이 출품되었으며 그중 국외작품이 195점으로 국제전으로서의 위상을 보였다. 예년에 비해 창의성과 기술적 난이도, 꽃들의 배합, 조형미 등에서 독창적인 특징과 미감이 돋보였고 새로운 관점에서 시도되는 활발한 표현력을 활용한 우수한 작품 총 189점이 선정되었다.



이번 대전에서 종합대상인 영예의 대통령상은 시원한 바람으로 행복감을 안겨 주는 부채 같은 선물을 표현한 전승희 작가의 '추억'이 주는 선물'이 차지했다. 수상작품들은 한국압화박물관에 연중 전시할 예정이다. 전중주 압화대전위원장은 "힘든 작업을 통해서 완성된 압화작품의 예술성과 가치가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담양군,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 접수

내달 10일까지

담양군은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40일 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은 2% 금리로, 농업 창업은 세대 당 최대 3억 원, 주택구입은 세대 당 최대 7천5백만 원이며 5년까지 10년 균등 분할 상환하는 이차 지원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만 65세 이하 세대주인 자,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으로 전입한지 5년 미만인 귀농인과 담양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

사 예정이고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다. 올해 7월부터는 농촌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도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농업창업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직 직업을 가진 자나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의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축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생산물을 활용한 서비스, 체험, 판매에 해당되는 사업 등록은 허용)은 지원할 수 없다.

담양=박종영 기자

문화관광의 중심지

기외 고장 영암! 문화관광 중심도시!

영암군 YEONGAM-GUN

평일 밤 한속 남다른 여행

여행을 떠난다는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월출산국립공원/한국트롯가요센터/월출산 기찬랜드